

# 철학의 구축과 건축적 사유

- 은유로서 건축과 철학적 건축술 -

## A Study of Architectonic Thinking in Philosophy and Architecture as Metaphor

강 혁\*

Khang, Hyuk

(경성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bstract

Architecture had played a significant role model in philosophy because the construction of building represented doing philosophy. 'Architecture as metaphor' made it possible that doing philosophy was a kind of construction of thinking and western philosopher considered himself as an architect of idea. As a system of system, architectural analogy gave philosophy a chance to insist himself as a theory of theory. So architecture had always been a privileged model of discourse system and also a fundamental metaphor in philosophy. Because of its original meaning, Architecture as techne could be considered as poiesis, that was the special building(making) in western culture. The archi(arche) - structure(techne) was a ideal model and mechanism of philosophy because with this analogy doing philosophy became a kind of building act to make a logical system of idea. This kind of tradition in philosophy, especially metaphysics, made the characteristics of western philosophy 'architectonic' that implied the meaning of the rational, stable, hierarchical and holistic. But this kind of tradition exposed the problem of philosophy that focused on Identity and excluded the others. The logocentrism of western philosophy was also the limitation of architectonic thinking and its reductionism became a grand monologue which only allowed systematic, rational discourse. Its ideological position Inevitably caused the anti-architectural thinking in modern age as a diverse form of new trend of thinking as like postmodernism or deconstruction. Even Deconstructivism, or 'informe', non-representation in architecture depends upon anti-architectural thinking.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s metaphor and the building of philosophy is problematique issue.

주제어 : 건축적 사유, 철학, 은유로서 건축, 구조와 구축, 동일성과 타자

Key words : Philosophy, Architecture as Metaphor, Architectonic Thinking, Anti- Architectural Thinking

### 1. 들어가는 말

건축을 통해 철학 문제를 사유하는 것은 서구 주류 철학의 오랜 전통이었다. 데카르트는 철학을 건축물의 건립에 비유했다.<sup>1)</sup> 칸트는 “인간 이성은 본성상 건축술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술’이란 체계들의 기술이라 말한다.<sup>2)</sup> 추상적인 관념 체계를 표상하는 데 건

축이 호출되고 있는 것이다. 멀리 플라톤으로부터 중세의 아퀴나스, 근대의 데카르트, 칸트, 헤겔, 하이데거, 현대의 데리다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유의 역사에서 건축은 빈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환되었다.

서구철학의 건축에 대한 이러한 깊은 관심과 의존은 흥미로운 현상일 뿐 아니라 무슨 연유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건축이 철학의 상상적 동반자가 된 것은 그저 당연한 일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 속의 건축, 곧 물리적 집짓기와 그 결과로서 건물 자체는 철학과 직접적인 관련

\* Corresponding Author : hkang@ks.ac.kr

1) René Descartes, *Discours de la méthode* (『방법서설』, 최명관역, 창, 2010), 73쪽, 77쪽, 87쪽

2)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순수이성비판 2』, 백

종현역, 아카넷, 2006), 956쪽

이 없다. 철학의 시조로 간주되는 플라톤은 하층 계급의 육체노동인 건설 행위를 경멸하였다.<sup>3)</sup> 그런데도 플라톤은 철학자를 건축가에 비유했다.<sup>4)</sup> 철학의 역사에서 사유를 전개하는 데 건축이 얼마나 비유로 동원해 폭넓게 사용했는지는 철학 텍스트를 조금만 읽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반(ground), 기초 혹은 토대(foundation), 구조(structure), 구축 혹은 축조(construction), 건립 혹은 짓기(building), 지지(support)와 같은 건축 용어가 현대 철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서도 드러난다. 유명한 마르크스의 상부구조와 토대라는 개념어부터 구조주의, 해체(탈구조, Deconstruction)에 이르는 개념어 역시 건축에서 비롯한 것이다. 실로 건축은 서구 철학사에서 사유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담당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구 철학사에서 위대한 철학자라 불리는 사람은 대개가 장대한 사유의 구조물을 지은 이들이다. “체계 없이 철학을 한다는 것은 학문이라 할 수 없다”고 헤겔은 말했다.<sup>5)</sup> 철학사, 특히 형이상학의 역사를 그러한 사유 체계를 쌓아간 역사라 보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6)</sup> 이때 철학자는 사유의 집을 짓는 건축가, 곧 관념의 건축가가 된다. 한 시대의 위대한 철학은 당대의 탁월한 철학자가 특유의 건축술로 건립해간 건축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 건축술의 한계와 약점을 간파한 후대 철학자에 의해 훼손되고 해체되거나, 혹은 수리되고 개조되어 재구축될 대상이기도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왜 서구 철학은 고대부터 건축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고, 건축을 매개로 사유를 전개했는가라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철학이 자신의 활동(철학함)을 사유의 구축, 즉 일종의 건축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론으로 이끈다. 그

3) 사유에 종사한 플라톤 같은 이가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노예나 노동자가 필요했다. 직업적 기술을 경멸하는 그리스인의 심성에 대해서는 헤로도토스도 『역사』에서 언급하고 있다. 거의 모든 외국인이 기술을 습득한 자와 그 자손을 미천하게 여기고 군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데 그리스인도 이런 습관에 물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코스토프는 그리스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가 상류계급이었다고 주장한다.

Herodotos, *Historia* (『역사』, 천병희역, 숲, 서울, 2009), 261-262쪽  
Spiro Kostof, *Architect* (『건축가』, 우동선역, 효형출판, 서울, 2011), 37쪽

4) Kojin Karatani, *Architecture as Metaphor* (『은유로서의 건축』, 김재희역, 한나래, 1998(1995), 42쪽

5) Udo Tietz, *Hegel für Eilige* (『헤겔』, 노선정 역, 생각의나무, 2009), 138쪽

6) 인식론이나 논리학, 윤리학, 미학도 철학이지만 본 연구에서 철학은 존재와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른바 제 1 철학인 형이상학을 의미한다.

리고 그런 배경에는 서구에서 건축(Architecture)이라 불린 건립(building) 행위에 대한 독특한 관점과 개념화<sup>7)</sup>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에 따른 건축의 모종의 속성이 철학(자)의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서구 철학의 수립에 건축이 담당해온 지대한 역할에 주목하면서, 철학이 주도한 건축의 동원과 참조, 그리고 거기에 기인한 건축적 사유의 성격을 기술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서구 철학의 건축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규명이면서 동시에 철학이 자기 정립을 위해 건축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논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철학을 사유의 구축으로 간주하는 서구 주류 철학의 전통을 설명하면서 그 배경과 이유, 거기에 따른 서구적 사유의 한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철학함’<sup>8)</sup> 건립 행위로 표상하는 서구 철학의 관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서구적 담론의 본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상술하고자 했다. 아울러 그러한 건축적 사유에 내재하는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고 그 비판으로서 제기된 반건축적 사유의 등장에 대해서도 간략히 조명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철학사의 연구도 아니고 특정 분야의 철학에 대한 내용적 연구도 아니다. 철학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건축을 동원해 사유의 전통을 수립해온 서구 철학의 담론에 집중해 그 성격과 양자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철학 전공이 아닌 건축 전공자가 철학에서의 건축 담론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한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사유와 건축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무모한 시도를 감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건축계 내부의 담론으로 소통되는 건축에 대한 통상적 사고를 넘어 건축에 대한 다른 사고, 나아가 더 넓고 깊은 인식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에서이다. 건축 담론이 건축 영역 내부에 머물지 않고 다른 영역과의 교환 가운데 더 생산적인 지평을 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건축 이론과 인문학을 횡단하는 일종의 학제적 연구의 성격을 띤다. 건축이론에 해당하는 본 연구는 서술과 분석의 방식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철학과 건축의 주요 텍스트들의 독해하고 참조하면서 수행되었다. 특히 드니 올리에의

7) ‘건축’과 ‘건립(짓기)’의 구분은 다른 문화권과 구별되는 서구만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었다.

8) 칸트는 철학은 배울 수 없고 오직 철학함만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Immanuel Kant, 앞의 책, 959쪽

『콩코르드 광장의 점령』(La prise de la Concorde)를 비롯한 여러 철학 담론에서의 건축에 대한 진술을 참조하면서 계발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했다.

## 2. 철학의 구축과 건축적 사유

일본의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은 서구 철학, 특히 형이상학의 원초적 추동력을 ‘건축에의 의지’라고 부른다. 여기서 건축에의 의지는 “견고한 건축물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뜻하는 것이다.<sup>9)</sup> 건축은 무엇보다도 구축(construction)을 통해 안정된 구조(structure)를 세우는 건립(building) 행위로 간주된다. 건축의 이런 측면에 주목해 철학이 자신의 사유 방식이나 그 결과로서 담론의 성격에 반영하고자 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연한 논리 체계의 수립이 철학의 제일가는 욕망이라면 건축을 참조하면서 철학의 사유 역시 그러하기를 회구했다는 것이다.

서구 형이상학은 종종 대성당의 구조에 비유되곤 한다.<sup>10)</sup> 단단한 지반 위에 안정된 기초를 놓고 작은 돌들(부분)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거대한 전체를 이룬 구조체가 중세 대성당이다. 그것의 현전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다. 파노프스키는 중세 스킨라 철학을 고딕성당과 평행적인 현상으로 해석하였다.<sup>11)</sup> 긴밀하고 장대하며 통합된 담론(논리) 체계를 생산하는 일이야말로 철학의 목표였으며 책무이기도 했다. 여기서 철학과 건축 사이에는 모종의 친근성이 발견된다. 철학 체계의 안정성과 긴밀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이 비유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건축에 기대어 철학이 자신의 담론을 펼쳐왔다는 사실은 철학의 역사에서 양자의 관계를 해명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철학의 담론이 구축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철학함을 사유의 건립(짓기)으로 간주하는 전통의 기원은 멀리 플라톤까지 올라간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잘 알려져 있다. 이데아는 세상의 변화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사물의 원형이다. 그것은 형상(form) 혹은 에이도스(eidos)라 불렸다.<sup>12)</sup> 플라톤에게 그 근거는 수학과 기하학이었다. 그것이 플라톤적 사유의 토대를

제공해주었고 철학의 논리적 체계를 구축하게 한 바탕이었다. 수학과 기하학으로 그는 자신만의 사유의 구조물을 새로 지을 수 있었다. 플라톤은 무엇이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옮겨갈 때 그 원인이 되는 작용을 짓기(poiesis)라 부르며 철학자를 건축가에 비유했다.<sup>13)</sup>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창조주를 뜻하는 데미우르고스(demiourgos)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는데<sup>14)</sup>, 데미우르고스는 제작자라는 뜻으로<sup>15)</sup>, 이는 플라톤이 우주의 제작자로서 창조주와 사유의 건립자로서 철학자를 현실 세계의 건축가에게서 유추하여 호칭했음을 추정하게 한다. 제작자인 건축가를 참조해 창조주를 비유하고, 더불어 철학자를 동열의 지위에 놓은 것이다. 선한 국가를 실현하는 구축자로서 철인왕에서 보듯 철학자의(우월한) 위상은 건축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sup>16)</sup>

중세의 스킨라철학은 고딕 대성당과 같이 크고 복잡한 신학 체계를 구축했다. 토머스 아퀴나스의 ‘신학총서’(Summa theologia)는<sup>17)</sup> 성당 건축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식 체계를 쌓았다고 주장된다. 양자의 내적 구조는 전체와 부분에서 상동 관계이며 그 결합은 위계적이고 유기적이라는 것이다.<sup>18)</sup> 고딕성당 자체가 지식의 논리적 체계를 가지적으로 보여주는 ‘돌로 된 책’이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아퀴나스의 스킨라 철학은 당대의 지식 전체를 체계화하려는 기획이었다고 평가된다. 그의 총서는 논리의 명료한 제시를 위해 건축을 가장 빈번한 유추로 사용하고 있다.<sup>19)</sup> 아퀴나스는 건축가란

13) Plato, *The Symposium*, W. Hamilton, trans., Harmondsworth, Penguin, England, 1951, p.85

14) Plato, *Timaios* (『티마이오스』, 박종현, 김영균 역주, 서광사, 서울, 2000), 27, 75쪽

15) 장인, 목수라는 어원을 지닌 데미우르고스의 우주 제작이 수학과 기하학에 바탕을 둔 것임은 쉽게 이해되며 그 본질이 질서인 것도 쉽게 납득된다.

16) 서구 철학의 시조로서 플라톤의 지위와 영향력,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정통적 계보에 반해 실제로 그들이 그리스 철학계의 비주류였으며, 그들에 가려진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유와 철학자에 대해서 주목하는 여러 연구와 주장이 있다. 하이데거 역시 소크라테스 이전에 파르메니데스에 주목한다. 다시 말하자면 ‘생성’으로 대표되는 이전 철학자(이오니아, 나아가 동방)에 대한 비판과 반발로서 플라톤은 ‘제작’을 내세웠으며, 그런 건축적 사유로 플라톤의 서구 전통철학의 수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Walter Burkert, *Babylon Memphis Persepolis: Eastern Context of Greek Culture* (『그리스 문명의 오리엔트 전통』, 남경태역, 사계절, 서울, 2008), 3장

Kojin Karatani, *TETSUGAKU NO KIGEN* (『철학의 기원』, 조영일역, 도서출판 b, 서울, 2012)

17)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적 신학 체계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이성)와 기독교(신학)의 중재 내지 조화가 아퀴나스의 주요 관심사였다.

18) Denis Hollier, 앞의 책, pp.83-85

9) Kojin Karatani, 앞의 책, 69쪽

10) Denis Hollier, *La Prise de La Concord, Essais sur George Bataille*, Gallimard, Paris, 1993, p.77

11) Erwin Panofsky, *Gothic Architecture and Scholasticism* (『고딕건축과 스킨라철학』, 김윤역, 한길사, 2016)

12) Bryan Magee, *The Great Philosophers* (『위대한 철학자들』, 수선철학회역, 동녘, 서울, 1994), 23-24쪽

“건축물의 재료를 다스리지 않고 건축물의 형상을 구상하는” 사람이라 말하는데, 그건 하급 노동자와 달리 건축가는 건립의 차원에서 집의 형상을 구상하는 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건축가로서 나는 기초를 쌓았다”는 선언을 한다.<sup>20)</sup> 건축가가 오직 기초에 전념하듯이 자신은 가장 고결한 것(형상)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그때 형상은 물질에 대한 관념의 지배를 확고히 하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질서를 형식화한 것을 가리킨다.<sup>21)</sup>

이렇듯 철학이 건축을 사유의 동반자로 삼은 것은 건축을 매개로 세계를 상상하고 존재를 사고했기 때문이었다. 철학은 건축을 거울삼아 세계를 독해하고 존재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는 건축적인 것, 즉 구조와 그에 따른 질서와 위계가 존재자들이 공유하는 속성이라고 보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장해 말하자면 실재를 담은 가장 강력한 사물인 건축에 기대어 서구 형이상학은 존재의 진리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존재를 기술하는 데 건축을 참조하는 지적 전통은 데카르트, 칸트로 이어지는 근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근대 형이상학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에는 건축적 비유가 도처에 등장한다. 초자연과 신비를 배제하고 인간 이성에 근거해 ‘명석 판명’한 추론을 하려는 그에게 이성의 기준은 낡은 집을 헐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든든한 토대였다.<sup>22)</sup> 경험대신 연역을 통해 그의 성찰이 도달한 코기토(Cogito)로 데카르트는 철학(형이상학)의 기초를 닦았다. 그 확고하고 단단한 기초 위에 더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sup>23)</sup> 한편 칸트의 유명한 비판(Kritik) 작업은 순수 이성의 건축술로 철학의 체계를 다시 지으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초월론적(transzendental) 방법이라 불렀다.<sup>24)</sup> 칸트는 체계를 한 이념 아래의 인식의

통일로 이해하면서, 인식을 학문으로 만드는 것이 이 체계적 통일성이라 주장했다. 우연이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의 형식을 망라할 때 학문이 가능하고 그것은 건축술적인 통합에 기초한다는 것이다.<sup>25)</sup> 그때 중요한 것은 기초가 잘 놓였는지, 건축물이 견고한지 여부이다.<sup>26)</sup> 칸트에 의하면 형이상학은 한때 모든 학문들의 여왕으로 불렸으나 근대에 들어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sup>27)</sup> 그의 『순수이성비판』은 이성의 능력 자체를 탐구하는 근본적 비판을 수행함으로써 형이상학을 ‘재건축’ 했다고 평가된다.

이상에서 보듯 근대에 이르기까지 건축은 항상 형이상학의 동반자였으며 이성의 수호자였다. 이러한 건축이 단순한 사물이나 예술 일반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과 권력, 경제와의 심오한 관련 속에 존재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건축은 결코 물리적인 대상(objet)에 머물지 않았다. 종교, 이념, 정치, 사회, 문화와 모종의 연관을 맺으면서 현실 삶에 개입하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철학의 담론이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영역이기도 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학문의 학문’으로서 메타적인 지위를 주장해왔다. 데카르트도 언급했듯이 다른 학문들은 철학으로부터 그 원리를 빌려왔던 것이다.<sup>28)</sup> 모든 학문의 기반이 철학인 것이다. 그런 철학의 정체성이 건축을 소환하여 자신을 정립하려 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다른 사물이 아닌 유독 건축인 이유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앞서 인용한 철학사에서의 건축적 은유에서 일차적으로 근거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다.

건축의 구축은 구체적으로 탄탄한 기초(토대)를 놓고 그 위에 수직으로 안정된 구조체를 올리는 일이 된다. 그런데 구조의 안정성은 우선적으로 대지의 지반(ground, Grund)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공고한 지반에 기초를 놓고 상부에 단단한 구조를 올릴 때 건축물의 전체 구조는 완성된다. 그런 구조를 바탕으로 공간을 형성하고 거주가 수용되는 것이다. 철학의 담론에 건축을 소환된 것은 이런 건립 행위를 사유를 전개하는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철학의 담론 역시 건축처럼 안정되고 건실한 기초(논거)를 바탕으로

25) Immanuel Kant, 앞의 책, 955-956쪽

26) 위의 책, 221쪽

27) 위의 책, 166쪽

28) René Descartes, 앞의 책, 74쪽

19) 위의 책, p.88

20) 여기서 기초는 원리인 arche와 같은 의미이다. 위의 책, p.86

21) ‘그의 신학적 건물 내부에서’ 존재들은 ‘합당한 위치’에 따라 제자리를 찾게 된다. 그러나 아퀴나스의 철학은 “건축물처럼 완결적이고 닫힌 체계”이기도 하다.

Umberto Eco, 『철학의 위안』, 조형준 역, 새물결, 서울, 1993, 162쪽, 165쪽

22) “그 기초가 아주 확고하고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위에 더 높은 건물을 세우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René Descartes, 앞의 책, 79쪽

23) 위의 책, 73쪽

24) 보통 transzendental은 말의 뜻을 그대로 번역해 초월적, 초월론적으로도 번역된다. transzendental이 경험에 앞섬을 뜻하는 선험적(a priori)과 깊이 연결된 개념이기에 ‘선험론적’이 적절하다는 김상봉교수의 견해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논리 구조를 갖추길 기원해서일 것이다. 고대부터 서구 철학이 지향해야 할 주요한 이념으로 간주된 체계와 질서를 가시적 구조로 표상하고 있기에 건축이 불러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철학이 건축을 소환한 이유가 행위이자 사물로서 건축의 본성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데카르트는 철학 체계를 나무(수목 구조)에 비유하기도 했다.<sup>29)</sup> 그렇다면 건축이 서구에서 지녔던 역사적 위상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sup>30)</sup> 건립(building)과 건축(Architecture)을 구분하고 건축에 우월한 지위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서구만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다. 대문자 A로 시작되는 Architecture의 Archi가 아르케(archè)에서 비롯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아르케는 시원, 근원, 원리, 제일의 뜻인데, 사물이나 현상의 존재 근거, 그리고 생성과 창조의 제일 원리를 뜻하는 그리스어이다. 이런 개념의 아르케가 단어 ‘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한편 tecture는 tektōn(장인, 목수), tectonic 등과 연결되며<sup>31)</sup>, 그리스어 테크네(techne)에서 비롯되는데,<sup>32)</sup> 산출로서 제작/짓기를 뜻하는 말이다. 그리스에서 테크네는 단순한 기예(術)를 넘어서 시 짓기(poetry), 농사짓기(culture)를 아우르는 산출 행위로서 포이에시스(poiesis)를 의미했으며, 진정한 앎(知)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sup>33)</sup> 이는 고대부터 건축이 단순한 짓기의 기술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술로 간주되었다는 뜻이며, 모든 제작/짓기의 으뜸으로서 특권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sup>34)</sup> 이런 어원적 함의는 왜 철학이 건축을 참조하고 ‘철학적’을 사유의 건립 행위로 간주했는지에 대한 유력한 하

나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보인다.

드니 올리에는 건축(Architecture)이 ‘원구조(原構造, archi-structure)’로서, 즉 “체계의 체계”로서 특별한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강조한다.<sup>35)</sup> 건축이 그저 하나의 체계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체계 중의 체계, 곧 체계 일반의 근본이자 근원적인 체계(구조)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건축의 특별한 위상은 학문의 학문으로서 철학이 고대부터 건축에 주목하고 밀접한 관계에 놓이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올리에는 실로 서구 사유의 전통에서 건축에 기대지 않고 체계를 묘사하는 방법은 없는듯하다고 말하고 있다.

마이클 헤이즈는 건축적 은유가 플라톤, 칸트, 하이데거, 테리다로 이어지는 철학의 역사를 압도해왔다고 말한다.<sup>36)</sup> 철학의 구축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온 것은 ‘말 그대로의’(literal) 건축이 아니라 이 ‘은유로서 건축’이었다. ‘철학적 건축술’이 가능했던 것은 건축적 은유 덕분이었는데, 그것을 통해 철학함은 사유의 건립으로 재현되거나 혹은 표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37)</sup> 철학의 담론 체계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이 은유로 동원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건축에 기대어 철학이 자신의 담론을 펼쳐왔다는 사실은 철학의 역사에서 양자의 관계를 해명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보인다.

보통 은유는 시(문학)나 수사학에서 표현과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은유가 없다면 언어와 사고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sup>38)</sup> 철학 역시 사유의 전개에 은유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건축적 은유를 통해 철학은 건축의 구조와 자신의 구조(체계) 사이의 ‘유사성’을 언표하면서, 물질적 대상(건축)과 관념적 대상(철학)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개념의 움김(전이)을 수행할 수 있었다. 철학이 사유의 건축술로 의미가 확장되는 것도 건축적 은유를 통해서이며, 철학함이 근본적인 건립/구축(poiesis)으로 표상되는 것 역시 마찬

29) Martin Heidegger, *Was ist Metaphysik?*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기상역, 서광사, 서울, 1977), 13쪽  
René Descartes, 『데카르트 전집』, 제9권, Adam et Tannery, IX, 14

30) 헤겔은 건축을 모든 예술의 기원으로 상정한다.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헤겔미학』, 두행숙역, 나남, 서울, 1998) 37쪽

31) 기원전 5세기에 헤로도토스는 ‘아키텍톤’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다.  
Spiro Kostof, 앞의 책, 37쪽

32) 테크네(techne)는 제작(poiesis), 곧 짓기(building/making)를 의미하며 자연의 생성 작용과 대조되는 산출 행위를 뜻한다.

33) “테크네는 결코 실제적인 행위의 한 방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테크네라는 말은 지(知), 인식, 지식의 한 양식을 지칭했다.”  
Martin Heidegger,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예술 작품의 근원』, 오병남 역, 경문사, 서울, 1986), 129쪽

34) 최초의 예술이라는 지위는 마땅히 건축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헤겔은 말한다.

Denis Hollier, 위의 책, p.11  
Kojin Karatani, 앞의 책, 66쪽

35) Denis Hollier, 앞의 책, p.69

36) M. Hays, *The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The MIT Press, Cambridge, 1998, p.658

37) ‘다시 나타남’을 의미하는 재현(representation)은 표상으로도 번역된다. 이는 “매개하여 있게 하는 의식활동을 가리킨다.” 독일어로는 Vorstellung으로 앞에 세운다는 뜻이다. 본 논문에서는 글의 맥락에 따라 재현과 표상을 적소에 사용했다.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서울, 2000, 10쪽

38) V. E. Taylor and C. E. Winquist, *Der Encyclopedia of Post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 백과사전』, 김용규 외 역, 경성대학교출판부, 부산, 2001), 375쪽

가지이다.<sup>39)</sup> 따라서 건축적 은유가 서구 철학의 정체성 수립과 자기 정립에 심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건축을 플라톤 이래 서구 주류철학이 쌓아온 형이상학을 가능하게 하고 지지하는 메커니즘이라 주장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서구적 사유의 특성 역시 건축술적 (architectonic)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sup>40)</sup> ‘건축적 사유’를 서구 철학의 핵심적 방법이라 불러 큰 무리가 없는 것이다.

### 3. 건축적 사유 비판

현대 학문의 주요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는 구조주의는 복잡한 현상 속에서 항구적인 구조를 찾고자 하는 접근 방식으로 이해된다. 즉 현상 이면의 내재하는 보편적 구조(혹은 심층 구조)를 찾고자 한다. 지속하는 불변의 질서나 틀을 탐색하고자 하며, 공통 요소를 추상하여 세계와 사회를 독해하려는 충동이 구조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한다.<sup>41)</sup>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구조가 현상의 외양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오직 요소와 요소, 부분과 전체와의 형식적 관계에 주목할 때 발견되는 어떤 질서 내지 체계라는 것이다.<sup>42)</sup> 즉 ‘구조적 공식성’이라는 것은 체계적 관계성의 다른 말에 불과한 것이다. 구조라는 건축 용어를 명칭으로 차용한 것은 무엇보다 전체를 이루는 부분과 그들 상호 관계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sup>43)</sup> 그리고 건축물에서 재료나 장식 같은 부수적인 것들을 벗겨낼 때 내부 구조(즉 부재들 간의 형식적 관계)가 드러나듯<sup>44)</sup>, 본질로서 보

이지 않는 구조 역시 여타의 것을 괄호 치고 사상할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유이자 방법으로서 구조주의는 형식화, 체계화, 추상화를 지향하며 불가피하게 환원적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구조주의는 동시대의 건축적 사유를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주의에서 보듯 체계성의 근간으로서 건축은 철학을 구성하는 특권적 은유로 계속 소환되고 있다.

그런데 올리에는 서구 주류철학을 지배해온 건축적 사유는 체계의 통일된 형식을 지향하기에 동일성을 강조하고 타자성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sup>45)</sup> “체계성의 근간으로서 건축은 정합성을 구성하고 보편적인 해독 가능성을 보장”하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건축적 사유는 의미를 총체화하고 동일한 것으로 귀착시킴으로써 체계를 확고히 하려 한다. 체계 구축이야말로 철학의 본질적 사명이며(헤겔), 학문 중의 학문으로 철학이 자리매김하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체계의 단일한 목소리는 불가피하게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거대한 독백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플라톤부터 중세 스콜라 철학을 거쳐 근대 철학에 이르는 서구 주류철학의 전통이 건축적 사유를 지향하는 한 예외 없이 그러했던 것이다. 시대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고 다른 담론을 펼쳐왔지만 그것들이 타자성을 배제하면서 동일성의 수호자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것이다. 담론 권력으로서 서구 철학이 동일성의 신화를 수립하면서 지배 권력을 옹호하고 그 존속에 기여해왔다는 지적은 낯설지 않다. 이런 이유로 데리다는 서구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라 부르며 비판한 바 있다.<sup>46)</sup> 그것이 건축적인 사유와 불가분의 관계임은 쉽게 추정된다. 여기서 서구 철학의 건축적 사유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 내지 한계가 제기된다.

달리 말해서 건축을 동반자로 삼아 담론을 전개해온 서구 철학의 전통은 특정한 담론 형식을 수립하려는 성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서구 주류철학이 회구해마지 않는 질서, 위계, 정합성, 총체성 같은 이념, 그리고 공고한 토대(기초)에 근거한 체계 구축의 욕망을 건축에 투사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 그러한 것이다. 더불어 지적해야 할 것은 철학의 이념적 모델로서 건축적 은유가 담당해온 역할, 즉 토대, 구조, 거주라는 3항 체계와 관련된 존재의 형이상학이 안고 있는 문제

39) 드니 올리에는 건축적 은유가 가능한 조건으로 ‘건립’ 말고 ‘건축’이란 말이 ‘추상적’인 구조물을 함의하고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을 표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Denis Hollier, 위의 책, p.66

40) 가라타니 고진은 체계화가 곧 건축적인 것이라 말한다.

Kojin Karatani, 앞의 책, 45쪽, 55쪽

41) Edith Kurzweil, *The Age of Structuralism* (『구조주의의 시대』, 이광래 역, 종로서적, 서울, 1985)

42) 레비스트로스는 현상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근본적 관계를 발견하는데 집중했다.

Miriam Gluksman, *Structuralist Analysis in Contemporary Social Thought* (『구조주의와 현대마르크시즘』, 정수복역, 한울, 서울, 1984), 36쪽

43) 이미 17세기부터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관계와 체계를 지칭하기 위해 건축 용어 ‘구조’가 쓰였다.

위의 책, 33쪽

44) 비올레 르 뒤은 건축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에 특히 주목하며, 구조를 건축의 본질로 상정하는 사고를 드러낸다.

Viollet-le-Duc, *The Architectural Theory of Viollet-le-Duc*, Ed. by M. F. Hearn, The MIT Press, Cambridge, 1990

45) Denis Hollier, 앞의 책, p.69

46) Christopher Norris, Jacques Derrida (『데리다』, 이종인 역, 시공사, 서울, 1999), 21쪽

이다. 철학에 의한 건축의 소환은 건축이 표상하는 구조적 안정성을 형이상학의 구축에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한다. 즉, 기초의 안정성이 확실성의 담보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sup>47)</sup>. 칸트는 형이상학을 단단한 기반에 놓인 안정된 기초의 상부에 세운 건축물로 묘사하고 있다. 지반, 기초, 건물의 위계적 구조로 형이상학이 비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 스스로 밝혔듯 칸트의 획기적인 비판 작업은 사유의 구조에 기초를 다시 놓으려는 시도였다.<sup>48)</sup>

일반적으로 데카르트로부터 비롯한 서구 근대 형이상학은 존재의 근거가 되는 지반을 (재)설정하려는 노력의 계기(繼起)로 규정된다. 칸트는 형이상학의 건축물이 급속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잔해만 남았다고 주장했다.<sup>49)</sup> 칸트 비판의 출발점은 과거 형이상학 체계의 지반의 부실함을 확인하면서 그 구조가 하중을 지탱하는 능력을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른 청산과 정지 작업, 그리고 ‘온전한 건축술적 기획’으로 칸트는 철학의 토대를 다시 정초(定礎)하고자 했다.<sup>50)</sup> 그러므로 지반과 기초의 재설정엔 이전과 다른 건축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며, 철학의 구조를 새로 세우는 작업이 된다. 서구 철학사는 이들 일련의 구조를 건립하고 대체해간 역사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철학의 존립이 지지와 세움이라는 건축적 논리와 제작 방식에 의존해 가능했던 것이다.<sup>51)</sup> 건축이 특권적인 은유로 사용되고 찾는 것이다.

그런데 철학이 반복적으로 건축적 은유를 동원해야 했던 것은 철학 내부의 문제, 즉 토대의 부실성 내지 불안정성 때문이었다. 하이데거는 서구 형이상학의 철학적 건축술이 지닌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형이상학이 서 있는 지반의 조건을 드러냄으로써 그 한계가 건축적 은유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up>52)</sup>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를 탐구하는 사유 활동으로서 형이상학의 과제가 그 토대를 놓는 일이라

할 때, 하이데거는 그 구조의 구조(성)를 심문하고자 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지반(Grund)의 근거의 부재함, 곧 심연(Ab-grund)이었다.<sup>53)</sup> 철학적 건축술의 역할은 건축의 표상 작용을 통해 그 하부, 즉 토대가 부재함을, 다시 말해 ‘지반 없음’(ungroundedness)을 가리고 숨기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건축이 토대의 무근거를 은폐하는 알리바이로 동원된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한 형이상학의 해체는 철학의 담론이 왜 건축을 필요로 했는지 가르쳐준다.<sup>54)</sup> 철학 자체의 구조적 결여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 건축을 불러와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은유로서 건축은 철학의 한계를 감추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한편으론 그것을 폭로하고 있기도 하다. ‘지반 없음’이라는 철학의 내부적 곤경이 건축의 소환을 요청한 셈이다. 이런 철학의 유한성, 철학의 무능력이 반건축적 사유의 근거이자 시작임은 쉽게 납득이 된다.<sup>55)</sup>

그러나 체계와 질서의 지킴이로서 건축에 대한 철학의 암묵적인 이해와 긍정은 ‘다른’ 건축의 존재를 생각해볼 때 그 근거 없음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미로(Labyrinth)와 바벨탑이 그것인데, 이들 예외적인 건축은 철학적 건축술이 처음부터 가정했던 이상을 교란하는 건축들인 것이다. 길을 찾을 수 없고 빠져나갈 방도가 없는 미로의 신화는 세계와 존재가 미로적 구조임을 암시한다. 세계의 본질이 무질서이며 불가해한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sup>56)</sup> 미로는 포착 되지 않는 공간이며 알 수 없는 공간이기에 로고스에 반하는 공간이며 불안의 공간이기도 하다. 정위(orientation)가 가능하지 않은 미로는 필연적으로 타자의 공간일 수밖에 없다.<sup>57)</sup>

바벨탑의 신화는 철학이 모델로 삼아온 완전한(이상

53) Mark Wigley, 앞의 책, p.7-8

54) 이런 점에서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해체와 함께 반건축적 사유(무와 존재)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형이상학을 존재 사건으로 강조하면서 그 극복과 변형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Martin Heidegger, *Was ist Metaphysik?*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서광사, 서울, 1977)

55) 올리에의 『콩코르드 광장의 점령』의 미국어 번역판은 아예 『반건축』이란 제목을 달고 출판되었다.

Denis Hollier, *Against Archite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1989

56) 보르헤스는 세계의 공간 구조를 미로로 파악한다.

Jorge L. Borges, 『보르헤스』, 김춘진 엮음, 문학과 지성사, 서울, 1996, pp.26-33

57) 이런 미로 공간은 불가피하게 존재와 언어와 결부되어 있다.

Daniel Barbiero, 'Against Architecture', *Design Book Review 19*, The MIT Press, Cambridge, 1991, p. 37

47) 칸트는 수학이나 자연학 같은 기초가 튼실한 학문은 이런 비판을 받을 일이 없다고 말하며 “나머지 모든 것은 비판에 붙여져야 한다”고 말한다. Immanuel Kant, 앞의 책, p.168

48) 위의 책, p.957

49) 위의 책, p.221

50) 그 하나가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의 구분과 물자체, 현상, 이념의 구조이다.

51) Mark Wigley, *The Architecture of Deconstruction, Derrida's Haunt*, The MIT Press, Cambridge, 1995, pp.9-10

52) Martin Heidegger,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이선일역, 서울, 한길사, 2001)

적) 건축의 불가능성 혹은 붕괴의 필연성을 지시하고 있다. 신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바벨탑 프로젝트는 인간의 말이 하나였기에 가능했다. 바벨탑의 붕괴 혹은 미완성은 이상적 건축의 시도가 지상에서 실패할 운명임을 가리키며, 아울러 번역이 불필요한 보편 언어가 지상에서 가능하지 않음을 뜻한다. 데리다도 지적하듯이 바벨탑 신화는 건축을 언어와 결부시키면서 지식과 권력과 욕망이 긴밀히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sup>58)</sup> 바벨탑 건립의 미완과 실패는 지상에서 철학이 계속 존립할 조건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론 그 체계의 한계와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로와 바벨탑이라는 (비)건축들은 건축, 언어, 존재, 철학의 상관성을 가리킨다. 하지만 미로, 바벨탑은 건축적 통념(bon sens)을 배반하는 공간이라 하겠다. 그런 이유로 건축적이고자 하는 철학의 소망에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지적해야 할 것은 철학의 '건축'에 대한 편견어린 이해이다. 즉 철학이 말하는 건축은 현실 건축이 아니라 관념 속의 건축, 이념화된 건축이라는 것이다. 철학이 기념비와 같은 플라토니한 건축에서 발견한 이상과 달리 현실 건축, 세속의 건축은 결코 순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철학의 건축 이해는 건축에 대한 하나의 이해, 특수한 종류의 이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철학의 구축 중심주의적 관점은 형식주의이자 일종의 환원주의인데, 건축에 대한 편견이거나 편협한 입장이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이 서구 철학과 건축 사이의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 철학이 건축에 기대어 존재에 관한 언설을 펼쳐왔다면, 건축 역시 철학을 인용해 건축 담론의 구축에 활용했다. 건축술의 이론적 바탕에는 철학의 지원이 있었다. 대문자 A로 시작하는 Architecture로 자신을 정위시키기 위해서도 건축은 철학이 필요로 했다고 보인다.<sup>59)</sup> 이는 동아시아의 조영(造營)의 전통과 비교에서 보듯이 비서구 세계의 건축에서는 낯선 일이었다. '짓기'와 차별화되는 '건축'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 원천은 철학이었다.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10서』(De architectura)에는 그리스 철학과 철학자들이 등장

한다.<sup>60)</sup> 실천의 원리와 근거를 철학에서 구하고 그것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했던 것이다. 서구 철학과 서구 건축의 역사는 상호 길항적 관계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 4. 반건축적 사유

반플라톤, 반헤겔로 대표되는 철학에서의 반건축적 지향이 두드러지게 등장한 것은 인간 이성이 세계와 인간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장악력을 키워간 근대에 들어서이다.<sup>61)</sup> 장대한 형이상학 체계가 건립된 시대인 근대는 동시에 그에 대한 거센 반발도 동반했던 시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반건축적 사유는 (은폐된)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의 작동 기제나 불가능성을 폭로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성 중심주의와 철학의 체계화, 형식화가 불가피하게 야기하는 동일성의 지배, 그리고 타자와 차이에 대한 배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거칠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선두에 니체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상식이다.<sup>62)</sup> 위반의 철학자 바타유를 위시해서 현전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해체의 철학자 데리다, 생성과 차이의 철학자 들뢰즈, 시물라크르와 시물라시옹의 철학자 보드리야르<sup>63)</sup>, 이들의 정향과 전략은 저마다 다르지만 서구 주류철학의 건축술에 대립하는 반건축적인 성격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외에도 건축적 사유에 동반하는 남성(남근) 중심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철학 역시 동일한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지만<sup>64)</sup>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는 체계적인 사고로

60) Vitruvius, 『건축 10서』, M.H.Morgan, 오덕성역, 기문당, 서울, 1987, 20쪽

61) 철학자-건축가인 플라톤 시대에 이미 반건축적인 철학자가 출현하는데,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다른 계보를 잇는 건유학과 철학자 디오게네스이다. 그는 공공의 광장에서 용변을 보고 자위를 했다. 그의 행위는 자연(퓌시스)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전언으로 말 대신 몸으로 철학을 한 사례가 된다.

Kojin Karatani, 『철학의 기원』, 조영일역, 도서출판 b, 서울, 2015), 211쪽

62) 니체는 스스로 자신의 철학을 파괴의 철학이라 불렀다.

김상환 외, 『니체가 흔든 철학 100년』, 민음사, 서울, 2002, 420쪽

63) Jean Baudrillard, *Simulacre et Simulation* (『시물라시옹』, 하태환역, 민음사, 서울, 1992)

64) 비엔나 태생인 비트겐슈타인은 분석철학자로 분류되며 영미 철학에 속한다. 그는 아돌프 로스의 제자인 앵겔만의 도움을 받아 누나의 저택을 지었다.

A. Janik & S. Toumin, *Wittgenstein's Vienna*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 석기용역, 필로소닉, 서울, 2013)

58) Jaques Derrida, "Architecture Where the Desire May Live", *Domus 671*, Milan, 1986, p.25

동일한 에세이가 다음의 책에도 수록되어 있다.

Kate Nesbitt,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rinceton, 1996, pp.147-149

59) Branco Mitrovic, *Philosophy for Architect* (『건축을 위한 철학』, 이충호역, 컬처그라피, 2011), 6쪽



철학하는 데 비판적이었고, 언어 이론의 축조 대신 실천으로서 사용을 강조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경우도 반건축적 사유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65)</sup> 또한 보편적 논리 대신 우연과 모순을 강조하는 아이러니스트 리처드 로티 역시 유사한 입장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sup>66)</sup>

견고하고 안정돼 보이는 구조 체계에 내재한 치명적 결함을 지적해 그것의 붕괴 가능성/근거 없음을 지적하는 데리다의 해체의 전략이 서구 형이상학의 건축적 전통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비판이라면,<sup>67)</sup> 구조의 정체성과 경직성을 주목하고 구축/제작 대신 생성, 그리고 리좀과 신체와 기계를 말하는 차이의 철학자 들뢰즈는 바깥에서의 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68)</sup> 이들에 비해 반건축적 사유의 선배격인 조르주 바타유는 사뭇 다르다. 합리적 집짓기를 모범으로 삼아온 서구의 오랜 담론 관습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책략으로 그는 글쓰기 (écriture)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일성 대신 이질성을, 논리학 대신 분변학을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바타유는 철학이 말하지 않거나 외면해왔던 타자를 도입함으로써 철학과 이성을 궁지에 몰고자 한다.

바타유는 모든 철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존재하는 것에 '수학적인 프록코트'를 제공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sup>69)</sup> 프록코트는 형식, 곧 실제 세계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가리키는데, 수학적이라는 수사는 엄밀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뜻으로, 불투명한 세계/존재를 투명한 것(로고스)으로 환원하려는 '건축에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바타유는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더럽고 역겨운 것들을 들이밀고자 한다. 그것들이 기성 철학의 한계, 세계를 설명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에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한계를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드니 올리에는 바타유가 도입한 글쓰기의 유희가 '반건축적'인 것이며, '반구축적인' 몸짓이라고 말한다.<sup>70)</sup> 건축

이 상징하는 질서와 권위와 위계에 반하는, "그 토대를 잠식하고 파괴하는 몸짓"으로서 바타유의 글쓰기는 서구적 사유의 전통 바깥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말할 수 없는 것, 의미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서구 철학의 전통이 '건축에의 의지'를 견지하는 한, 반건축을 수반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성과 합리성이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게 된 근대에 들어 반건축적 사유가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보통 현대의 문화 운동이자 사상의 흐름인<sup>71)</sup>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론이 반건축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거대 서사와 진보 신화를 표방하는 단일한 목소리이자 체계와 동일성을 지지하는 이성중심주의가 가진 구축주의적 성격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자 대안적 사유의 모색이기 때문이다.<sup>72)</sup>

아이러니한 것은 칸트와 헤겔에 의해 서구 형이상학이 가장 위대하고 장대한 관념의 건축물을 쌓아가고 있던 시기에 건축은 일대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주와 자연과 신성과 맺은 오랜 유대가 끊어지면서 사회와 문화를 지탱하던 건축의 힘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비트루비우스 이래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라 간주됐던 고전건축의 원리는 근대 세계의 도래와 함께 권위를 대폭 상실했다.<sup>73)</sup> 건축은 우월적 지위 잃었고 그것의 강력한 아우라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시기에 건축은 조형 예술의 일개 장르로 전략을 꺾게 된다. 빅토르 위고는 『파리의 노트르담』에서 '건축의 죽음'을 선언한 바 있는데<sup>74)</sup>, 건축이 그 존재 형식으로 말미암아 열등한 매체가 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sup>75)</sup>

71) 탈근대 내지 반근대의 성격을 띤 포스트모더니즘은 건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해진다.

Mathei Calininescu, *Five Faces of Modernity*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외 역, 시각과 언어, 서울, 1987), 343-345쪽

72) Jean-François Lyotard, *La Condition Postmoderne* (『포스트모던의 조건』, 유정환 외 역, 민음사, 서울, 1984), 180-181쪽

73) 그리스 전례에 상당히 빚지고 있는 로마의 건축 전문지식을 집대성한 비트루비우스의 건축10서는 고대로부터 전해진 유일한 건축 이론서이다. 오더의 비례를 고정시키려는 등 보수적 관점에서 쓰인 그 책은 건축의 정전으로 르네상스 이래의 고전주의 전통을 수립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고전주의는 자족적이고 닫힌 체계였다. 17, 18세기부터 고고학의 발견, 타 문명의 발견, 과학 기술의 발달은 고전주의의 그런 전통을 해체하고 권위를 무너뜨렸다.

Hanno-Walter Kruft,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4, chap. 1, 5

74) "단단하고 영속적인 돌로 된 책은 훨씬 견고하고 항구적인 종이 책으로 대체되었다", "책은 정녕 건축물을 죽이려한다."

Victor Hugo, *Notre-Dam de Paris* (『노틀담의 꼽추』, 김영한역, 청목) 114쪽, 117쪽

65)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논리철학논고』)이 건축적 사유의 성격을 띤다면 거기에 대한 반성인 후기 철학(『철학적 탐구』)은 반건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Kurt Wuchterl, *Ludwig Wittgenstein* (『비트겐슈타인』, 최경은역, 한길사, 서울, 1999)

66) 미국철학자인 로티는 미 실용주의철학의 계승자로 분류된다.

Richard Rorty,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 김동식 이유선 역, 사월의책, 서울, 2020)

67)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서울, 1996, 169-200쪽

68) Gilles Deleuze, *La Pli, Leibniz et le Baroque* (『주름』, 이찬웅역, 문학과지성사, 서울, 2004)

69) Denis Hollier, 앞의 책, p.99

70) Denis Hollier, 앞의 책, p.52

헤겔은 정신이 물질에 간혀 있는 건축을 가장 낮은 단계의 예술로 지목했다.<sup>76)</sup> 건축의 강함이 역으로 약함의 원인이 된 것이다. 헤겔이 예술의 종언을 선언한 근대에 건축은 자기 정체성을 바꿔가면서 생존을 도모해야 했다. 기능(용도)에 부응하는 합목적적인 존재로, 사회 개선의 도구로, 프로그램과 디자인의 실천으로, 그리고 기호, 이미지, 텍스트, 상품으로 건축은 자기를 규정해 가야 했다. 여기에 이미지와 시뮬라크르가 합세했다.

이제 건축은 외부 참조하진 않고서는 스스로를 생산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1980년, 90년대 해체주의 건축의 대두는 철학의 건축에로의 (일방적) 번역이 디자인 생산의 주된 방편이 되었음을 고하는 사건이었다.<sup>77)</sup> 철학자를 인용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푸코, 데리다, 들뢰즈가 회자되었다. 집짓기는 건축적 글쓰기, 즉 일종의 텍스트 생산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건축을 통해 사유하고, 구축으로 건축을 보는 사고의 습성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체계적인 담론만을 철학으로 용인하고 그 외부를 배척해간 과정이 철학사였다면 주류 철학계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이성의 건축술로서 철학인 것 같다. “건축술로서 철학은 붕괴했다”고 료타르는 선언한다. 그러나 알랭 바디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건축적이지 않은 철학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sup>78)</sup> 철학의 사유는 구축적일 수밖에 없고, 구축적인 작업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종식될 수 있을 지는 의문스럽다. 체계/논리 없는 철학은 철학일 수 없고, 그것이 모든 이론 혹은 학문 일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반면에 반건축적인 입장조차 건축을 의식하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건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들뢰즈의 리즘에서 보듯 반건축을 표방하는 철학이 건축을 대리/대체 표상하는 다른 대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목격하게 된다. 철학에 의한 건축의 지속적인 소환이 철학이 내포한 모종의 한계 내지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담론의 가상적 구축물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그 건립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철학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의문 역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는말

이상으로 서구 철학에서의 건축적 사유의 전통을 살펴보고 그 성격을 규명해보았다. 서구 철학이 사유를 전개하기 위해 고대부터 건축을 소환해왔고, 건축적 은유를 활용해 철학을 구축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서구 주류철학의 전통을 철학적 건축술이라 불러 과장이 아닌 정도로 철학은 건축에 기대어 자신의 사유 체계를 구축해왔다. 서구 철학이 건축을 매개로 사유를 펼친 것은 은유를 통해서 건축을 단순한 물적 대상을 넘어선 관념의 구축으로 표상했기 때문이었다. 즉, 철학을 관념의 건축적 재현으로 간주해 견고하고 안정된 논리 체계를 세우고 긴밀하고 통합된 담론을 생산하는 일을 목표로 삼은 것이었다. 따라서 ‘철학함’은 사유의 건립 행위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구적 사유의 특성 역시 건축술적인 것이 되었다. ‘학문의 학문’으로서 철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정 부분 ‘체계의 체계’인 건축을 닮음(mimesis)으로서였던 것이다.

그런데 건축이 철학이 다른 사물이 아닌 건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철학함의 모델을 구한 것은 서구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상, 즉 단순한 짓기(building)를 넘어선 건축(Architecture)으로 존재한다는 특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것은 Architecture의 어원에 포함된 아르케(arche)의 의미에서 잘 드러나며, 건축을 특별한 산출이자 제작 행위로서 테크네, 곧 포이에시스(poesis)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사물이자 행위로서 건축의 입지가 건축을 인식의 거울이자 존재의 질서와 형식을 표상하는 구조물로 간주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런 배경으로 해서 건축은 서구 철학, 특히 형이상학을 가능하게 하고 지지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었으며, 사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건축을 모델로 삼은 사유의 구축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표상하는 (구조적) 합리성을 이념으로 삼게 하며, 이는 철학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이성적이어야 하는 근거가 되었다.<sup>79)</sup> 더불어 건축의 부분과 전체, 부분과 부분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형식적 전일성과

75) Neil Levan, “The Book and the Building”, *The Beaux-Arts*, R. Middleton, ed., The MIT Press, 1982, pp.138-173

76) G. F. Hegel, 앞의 책, 50쪽, 129쪽

77) Mark Wigley, 앞의 책, 5-6쪽

78) Alain Badiou, *Manifeste pour la Philosophie* (『철학을 위한 선언』, 서용순 역, 길, 서울, 2010), 41쪽

79) 반대로 철학이 이런 이상을 추구했기에 현실의 건축을 소환한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통합성 역시 철학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철학의 담론이 추구하는 엄밀성, 정합성, 보편성 역시 건축적인 사유에 따르는 자연스런 정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구 철학의 이성 중심주의적 전통은 건축적 사유와 불가분의 관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유의 전통은 건축의 본질을 구조로 상정하는 '구축중심주의'적 관점을 띠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사유가 구조적 안정성과 긴밀성을 필수적 조건으로 상정하기에 쉽게 수궁이 되지만, 동시에 건축을 구성하는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괄호치고 배제하는 사유의 방식을 동반하기에 문제적이기도 하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이런 관점이 동일성을 서구 주류 철학의 중심이념으로 삼으면서 차이와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사유의 기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이른바 로고스(이성) 중심주의로서 서구 철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서구 인본주의의 기저를 구성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반건축적 사유가 근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해체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건축적 사유가 철학의 기저에 깔려 있는 체계와 질서, 이성과 논리, 그리고 동일성에 대한 욕망과 의지를 드러낸다면, 반건축적 사유는 그것이 지닌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바깥의 다른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흐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이와 타자에 주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대의 경향은 반건축적 사유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구 철학과 건축 양자 간의 특별한 관계이다. 역사적으로 철학과 건축은 서로를 참조하고 반영하면서 자신을 정립해왔다는 상호 길항적 관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철학에 의한 건축의 소환과 함께 전문 영역으로서 건축의 수립 역시 철학에 기대어 이루어졌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길고 복잡한 서구 철학의 전통을 구축중심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역사를 건축적 사유와 반건축적 사유의 변증으로 정리하려는 본 연구가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와 거칠고 도식적이라는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연구를 서구 철학의 건축 소환에 따른 그 독특한 성격에 대한 건축의 입장에서 본 하나의 해석이라고 본다면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Denis Hollier, A La Prise De La Concorde, Essais sur Georges Bataille, Gallimard, Paris, 1993
2. Denis Hollier, Against Architecture, trans. by Betsy Wing, The MIT Press, Cambridge, 1989
3. Kojin Karatani, Architecture as Metaphor (가라타니 고진, 『은유로서의 건축』, 김재희역, 한나래, 서울), 1998
4. Kojin Karatani, Tetsugaku No Kigen (가라타니 고진, 『철학의 기원』, 조영일 역, 도서출판b, 서울), 2015
5. Martin Heidegger,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마틴 하이데거, 『예술 작품의 근원』, 오병남 역, 경문사, 서울), 1986
6. Martin Heidegger, Holzwege (마틴 하이데거, 『숲길』, 신상희 역, 나남, 서울), 2008
7. Martin Heidegger, Was ist Metaphysik? (마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기상 역, 서광사, 서울, 1977)
8. Martin Heidegger,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마틴 하이데거,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이선일 역, 한길사, 서울), 2001
9. René Descartes, Discours de la méthode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최명관 역, 창, 서울), 2010
10.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1』, 『순수이성비판 2』, 백종현 역, 아카넷, 서울), 2006
11. Geor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게오르기 헤겔, 『헤겔 미학 3』, 두행숙 역, 나남출판, 서울), 1998
12. Udo Tietz, Hegel Für Eilige (우도 티에츠, 『헤겔』, 노선정 역, 생각의나무, 서울), 2009
13. Plato, The Symposium, W. Hamilton, trans., Harmondsworth, Penguin, England, 1951
14. Plato, Timaios (플라톤, 『티마이오스』, 박종현, 김영균 역, 서광사, 서울), 2000
15. Herodotos, Historia (헤로도토스, 『역사』, 천병희 역, 숲, 서울), 2009
16. Christopher Norris, Jacque Derrida (크리스토퍼 노리스, 『데리다』, 이종인 역, 시공사, 서울), 1999
17. Kurt Wuchterl, Ludwig Wittgenstein (부흐테를, 『비트겐슈타인』, 최경은 역, 한길사, 서울), 1999
18. Allan Janik & Stephen Toumin, Wittgenstein's Vienna (앨런 재닉, 스티브 톨민,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 석기용 역, 필로소닉, 서울), 2013

19. Jean Baudrillard, *Simulacre et Simulation*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하태환역, 민음사, 서울), 1992
20. Jean Baudrillard, Jean Nouvel, *Les Objets Singulier* (장 보드리야르, 장누벨, 『건축과 철학』, 배영달 역, 동문선, 서울), 2003
21. Richard Rorty,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리처드 로티,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 김동식, 이우선 역, 사월의책, 서울), 2020
22. Gilles Deleuze, *La Pli, Leibniz et le Baroque* (질 들뢰즈, 『주름』, 이찬웅역, 문학과지성사, 서울), 2004
23. Georges Bataille, *La Part Maudite* (조르주 바타유, 『저주의 몫』, 조한경역, 문학동네, 서울), 2000
24. Michael Richardson, *Georges Bataille*, Routledge, London, 1994
25. Jean-François Lyotard, *La Condition Postmoderne* (장 프랑소아 료타르, 『포스트모던의 조건』, 유정완 외역, 민음사, 서울), 1984
26. Alain Badiou, *Menifeste pour la Philosophie* (알랭 바디우, 『철학을 위한 선언』, 서용순 역, 길, 서울), 2010
27. Umberto Eco, 『철학의 위안』, 조형준 역, 새물결, 서울, 1993
28. Edith Kurzweil, *The Age of Structuralism* (에디츠 쿠르츠웨이, 『구조주의의 시대』, 이광래 역, 종로서적, 서울), 1985
29. Miriam Gluksman, *Structuralist Analysis in Contemporary Social Thought* (미리암 글루스만, 『구조주의와 현대마르크시즘』, 정수복역, 한울, 서울), 1984
30. Jorge. L. Borges, 『보르헤스』, 김춘진 엮음, 문학과지성사, 서울), 1996
31. Bryan Magee, *The Great Philosophers* (브라이언 매기 편, 『위대한 철학자들』, 수선철학회 역, 동녘, 서울, 1994)
32. Walter Burkert, *Babylon Memphis Persepolis: Eastern Context of Greek Culture* (발터 부르케르트, 『그리스 문명의 오리엔트 전통』, 남경태 역, 사계절, 서울, 2008),
33. Mathei Calininescu, *Five Faces of Modernity* (마테이 칼리니스쿠,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외 역, 시각과 언어, 서울, 1987)
34. V. E. Taylor and C. E. Winqvist, *Der Encyclopedia of Postmodernism* (테일러, 윈키스트, 『포스트모더니즘 백과사전』, 김용규 외 역, 경성대학교출판부, 부산, 2001)
35. 김상환 외, 『니체가 혼든 철학 100년』, 민음사, 서울, 2002
36.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서울, 1996
37.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서울, 2000
38. Mark Wigley, *The Architecture of Deconstruction, Derrida's Haunt*,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1993
39. K. Micheal Hays, Ed.,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1998 (마이클 헤이스,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봉일범역, 시공문화사, 서울, 2003)
40. Kate Nesbitt,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rinceton, 1996
41. Robbin Middleton, *The Beaux-Arts*, The MIT Press, Cambridge, 1982
42. Hanno-Walter Kruft,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4
43. Viollet-le-Duc, *The Architectural Theory of Viollet-le-Duc*, Ed. by M. F. Hearn, The MIT Press, Cambridge, 1990
44. Vitruvius, 『건축 10서』, M.H.Morgan, 오덕성 역, 기문당, 서울, 1987
46. Erwin Panofsky, *Gothic Architecture and Scholasticism* (어윈 파노프스키, 『고딕건축과 스콜라철학』, 김을 역, 한길사, 2016)
47. Branco Mitrovic *Philosophy for Architects* (브랑코 미트로비치, 『건축을 위한 철학』, 이충호 역, 컬처그라피, 서울), 2013
48. Spiro Kostof, *Architect* (스피로 코스토프, 『건축가』, 우동선역, 효형출판, 서울, 2011)

접수(2022. 01. 14)

수정(1차: 2022. 02. 14)

게재확정(2022. 02. 22)